

감정의 미로

자유기고가 김춘겸

감정(感情:feeling)이란 사물에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 곧 심정, 기분이다. 심리학에서는 기쁨·성남·놀람·즐거움·슬픔·괴로움 등의 말로써 표현되는 감정적(感情的)인 체험의 총칭이다.

일반적으로 감정은 어떤 감각의 속성으로 보기 쉬우나 특별한 감각기관이 감수(感受)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생활체험으로써, 또 마음의 동요로써 경험되는 것이다. 감정은 주로 외부의 자극에 의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외적인 자극만이 아니라 내적인 동인(動因)에 의해서도 종종 일어난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외계의 자극을 인지하는 작용과는 구별된다. 감정에는 인지작용과 달리 착각이나 환각과 같은 것이 없고, 자신의 주관적인 의식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현상으로서의 감정에 대응하는 생리적 중추과정은 지금까지도 분명하지 않다. 자율신경계의 지배하에 있는 유기적인 변화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결정적인 대응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는 역시 분명하지 않다.

감정의 성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감정에는 쾌

와 불쾌의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또한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분트(Wilhelm Wundt:1832~1920)는 쾌와 불쾌 외에 긴장(tension)과 이완(relaxation)이 제2의 축을 이루고, 흥분(興奮)과 침정(沈靜)이 제3의 축을 형성하여, 3방향으로 나누인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분트의 <감정의 3방향설>이라고 한다. 즉 감정은 무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쾌와 불쾌, 흥분과 침정, 긴장과 이완의 대립적 계열(系列)을 가진 주요한 삼방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감정은 이 세 가지 방향의 기본감정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3방향설은 그 후 널리 학계의 일반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독일의 심리학자이며 철학자인 분트는 박학다식하여 심리학에서 실증적 색채가 강한 포괄적 체계를 수립하였다. 철학적으로는 비판적 실재론(批判的實在論)으로서 의지를 주체로 하는 윤리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신과학의 근저에 심리학을 두어, 개인 심리를 대상으로 하여 생리학적 실험방법을 써서 실험심리학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집단심리(集團心理)를 대상으로 하여 민족 심리학을 개척하였다.

감정의 분류로서는, 인간의 감정은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적절히 분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개념정리학의 편의를 위해서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첫째, 단순감정(單純感情)이다.

감각적 감정이라고도 하며, 이것은 감각경험, 가령 색깔·음향·냄새 등의 지각에 수반해서 일어나는 쾌와 불쾌의 의식현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시 지각대상의 성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상(對象)감정과 예컨대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났을 때의 쾌감과 같은 유기(有機)감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기감정(organic feeling)이란 유기감각(organic sensation)에 따라 일어나는 복합적(複合的)인 감정을 말한다.

둘째, 정서(情緒)이다.

공포·불안·분노·기쁨과 같은 강한 감정상태를 정서(emotion)라고 하며,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서는 강도가 강한 감정이지만은 비교적 일시적이라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대개의 정서는 여러 가지 생리적 변화를 수반한다.

셋째, 기분(氣分)이다.

마음에 느껴지는 상태인데, 감각에 따라 생기는 단

순한 감정이다. 정서와 매우 유사한 감정상태를 의미하지만 강도가 정서에 비하여 훨씬 약하다. 그러나 정서에 비하여 오랜 시간동안 계속되는 것이 특색이다.

몇 시간씩, 또는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동일한 기분이 지속되기도 한다. 기분은 유기감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도 있으나 대개는 정서의 잔효(殘効)로서 생기는 일이 많다고 한다.

공포감을 느낀 다음에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기분이 좋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는 반대로 기분이 정서로 변이하는 일도 있다.

넷째, 정조(情操)이다.

정신의 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복잡하고 고상한 감정이다. 고등감정, 지적감정, 감각적(感官的)감정 등이 있다. 비교적 영속적인 성질의 감정적 태도를 정조라고 하며,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수용(受容)과 거부(拒否)의 형식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감정적 태도는 주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것이며, 동시에 고등정신 활동에 수반되는 것이다. 근자에 와서는 정조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그것은 감정의 상태라기보다 태도의 일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감정의 조건, 즉 감정의 상태를 결정하는 조건으로서 유기체의 내적상태와 외적 자극의 성질을 들 수가 있다. 유기체의 내적 상태는 성숙의 정도·학습의 결과·동기·태도·결과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동일한 외적 자극이라 하더라도 유기체의 내적인 감정적 소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감정을 일으키게 된다. 객관적으로 보아 불쾌감정을 일으킬 만한 자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그 개인의 내적 상태가 불쾌감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개인의 내적 상태를 규정함에 있어서 성숙과 학습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개인의 강한 욕구·욕구좌절·갈등·환멸감·긴장의 해소 등이다.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강도가 강한 감정 즉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욕구좌절(frustration)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역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난다.

두 개의 욕구가 서로 격돌하여 갈등상태에 빠지면 역시 강한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긴장이 해소되어서 가벼운 기분이 되거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은 사실은 감정의 조건으로서 긴장해소의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감정과 신체와 관계에 있어서는, 감정은 그 강도가 강할 때에 즉 공포나 분노와 같은 정서적 반응은 신체적 변화를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감정이 일어나고 있을 때의 모든 신체적 변화는 자율신경계·뇌척추신경계 및 내분비선의 복합적인 작용에 달려 있다.

주요한 신체적 변화의 징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면표정과 거동감정은 안면근육·혈색·손짓·음성·태도 등에 변화를 가져온다.
2. 심장과 혈액순환의 변화가 있다.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면 심장은 빠른 속도로 고동

하게 되며, 혈압과 혈관운동에도 즉각적으로 빠른 변화를 가져온다.

3. 호흡의 변화가 있다.

호흡은 감정에 의하여 민감하게 변화한다. 평온하고 평정한 상태에 있을 때에는 호흡이 규칙적이나, 감정이 격하게 되면 호흡이 불규칙적으로 변한다.

4. 피부의 전기저항의 변화가 있다.

감정에 의한 신체적 변화의 하나로서 피부의 전기저항(電氣抵抗)의 현상을 들 수 있다. 이것은 GSR(Galvanic Skin Response)로써 측정된다.

5. 동공반응(瞳孔反應)이 있다.

분노를 느끼거나 괴로운 감정이 있을 때 눈의 동공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6. 타액의 분비에서 나타난다.

감정적인 격정을 일으키면 타액의 분비가 감소되어 입속이 타고 마르는 현상을 나타낸다.

7. 모발(毛髮)이 운동한다.

모근에는 아주 작은 평활근(平滑筋)이 붙어 있어서 무서워졌다든지 분노를 느꼈을 때에는 털이 뺏뺏하게 곤두선다.

8. 위장(胃腸)운동

공포나 분노와 같은 격정적인 흥분상태는 위나 장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경향이 있다.

9. 근육 긴장

불만 감정의 징후는 신체의 긴장인데, 특히, 여러 가지 정도의 근육긴장이 생긴다.

10. 혈액의 화학적 성분

감정적 흥분에 의하여 혈액 속의 당분·산성의 강도·아드레날린(adrenalin)에 변화가 온다는 것이 최

근의 연구보고에 의하여 밝혀졌다.

《감정교육(感情教育)》은 1869년에 발표된 프랑스의 소설가인 플로베르(Gustave Flaubert:1821~1880)의 사실주의 소설이다. 어떤 지방의 평범한 청년이 사랑과 성공을 꿈꾸고 파리에 나와서 복잡다단한 인생경험을 체득한다. 그 가운데, 한 부인에 대한 진실하고 순수한 사모(思慕)를 중심테마로 하여 간결하게 묘사한 산뜻한 소설이다.

이 소설의 배경은 당시 사회의 어지럽던 사상·정치·문화·풍속 등을 재치있게 재현하였고 자신이 겪은 사랑을 회상하면서 완성시킨 발군의 작품인 것이다. 이 소설의 문체는 후세의 자연주의 작가의 사표(師表)로 널리 세상에 알려졌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는 1857년에 발표된 그의 대표작인 《보마리 부인(Madam Bovary)》보다도 오히려 높이 평가되고 있다.

감정미학(感情美學)은 미의식(美意識) 활동의 근원이 감정에 있다고 하는 설이다.

선험적(先驗的)인 여러 인식력(認識力)의 조화에서 오는 무관심한 쾌감이라고 미를 정의한 독일의 철학자 칸트(Kant)에서 비롯하였다.

그 후 키르흐만(J. H. Kirchmann)의 대상적 미감과 마샬(H. R. Marshall)의 상태감정의 쾌감성 등을 중시하게 되었고, 드디어는 립스(T. Lipps)의 감정이입설(感情移入說)까지 나왔다. 감정이입(empathy, motor mimicry)은 그 후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관조(觀照)의 목적 대상인 자연의 조화나 인간의 감정에 들어 그것과 같은 상태에 이름을 말한다.

또 코베(H. Cobeh)의 선험적인 동적 순수감정설도 있으며, 오늘날에는 오데브레히트(R. Odebrecht)가 현상학적 입장에서 자아의식의 특수한 상태를 나타내는 전체감정 내지 기분에서 미적 가치체험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칸트와 슐라이에르마허(F. E. D. Schleiermacher)의 미학을 감정미학의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을 기도하고 있다.

